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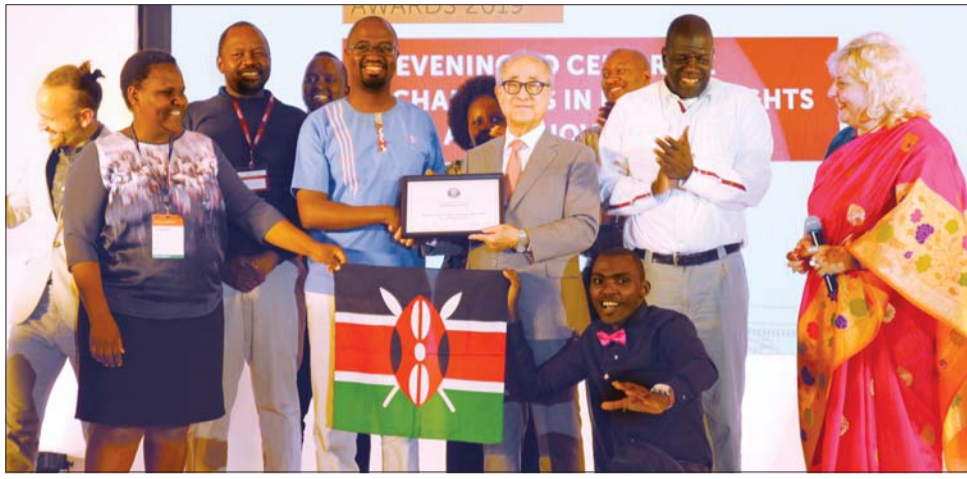
종근당고촌재단, 고촌상에 케냐 NGO단체 선정

결핵환자 인권향상 기여 인정

종근당고촌재단이 최근 인도 하이데라바드 트라이덴트호텔에서 제14회 고촌상(Kochon Prize)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고촌상은 케냐의 NGO단체인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네트워크(KELIN)'가 수상했다.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네트워크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들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함으로써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주변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 또한 케냐 내 결핵 퇴치를 위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결핵환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 수상자들이 이종근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결핵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31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트라이덴트호텔에서 제14회 고촌상(Kochon Prize) 시상식을 가졌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과 올해 수상단체 KELIN의 알렌 아체사 말리세 대표(오른쪽 세번째, 네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국내 철강사가 나아갈 길



기자 수첩

정연우
(산업부)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자연 생태계 내에서도 적응 잘 하는 동물이 살아남듯 산업계에서도 혁신의 흐름을 잘 읽는 기업이 성공한다. 점진적 변화를 피하며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미래는 걱정이 없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 발표되는 것을 보고 국내 철강업체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았다.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41억원 기록했다. 2018년 3분기보다 66.6%나 줄어든 데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포스코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5조9882억원, 영업이익 1조398억원 기록했다. '9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국내 철강사 빅2의 영업이익 하락은 단순히 기업의 잘못만은 아니다. 연초 70달러대였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120 달러로 70% 이상 급등해 철강사들의 원가부

담이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철광석 가격은 86달러로 떨어졌지만 올해 초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 기조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무시하란 의미는 아니다. 매 분기마다 나오는 '성적표'는 기업 스스로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철강업계는 공급과잉에 당면하고 있다. 기술격차 등 제품의 차별화로 얼마든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 개발과 융복합철강 기반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우선이다.

생산의 시대는 끝났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를 생각해 고품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급변할 필요는 없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 단계 진보해야 한다.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재시장 수요 트렌드에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ywj964@metroseoul.co.kr

롯데, 소아암 어린이 위한 '헌혈 캠페인'

롯데 유통사업부문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생명 존중'을 테마로 '잼잼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등 롯데 유통사업부문 전 계열사와 대한적십자사, 한국소아암재단이 함께하는 '잼잼 헌혈 캠페인'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잼잼 헌혈 캠페인'은

헌혈을 할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동작을 착안해 붙여졌다.

4일 10시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중구 소공동을 시작으로 강남구 대치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 롯데 유통사업부문 15개 계열사가 위치한 주요 지역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15일간 전국 30개 대학교 주변에 적십자 헌혈버스를



롯데 유통사업부문이 '생명 존중'을 테마로 '잼잼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롯데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치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48년생 많이 먹고 급체할 운. 60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 72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하자. 84년생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니 모든 일이 순조롭다.

소 37년생 나이는 잊고 용기를 내라. 49년생 밀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형국. 61년생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면으로 돌파. 73년생 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 85년생 자신의 특기가 대안해 보여도 실상은 별 것 아님.

호랑이 38년생 새 인연으로 좋은 일이 있다. 50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62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74년생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86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이 옳다면 주권대로 행동.

토끼 39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입조심. 51년생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 63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다. 75년생 사랑하는 사람이 한눈을 파는 것 같다. 87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를.

말 40년생 친구의 부음을 듣는다. 52년생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성공이 가장 완벽한 복수다. 76년생 선봉에 나서면 남들의 시기를 받는다. 88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하자.

뱀 41년생 처우치지 말고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라. 53년생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이지 마라. 65년생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77년생 일이 잘 풀려도 의외의 복병을 조심. 89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말 42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54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6년생 남쪽으로 여행수가 있다. 78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 90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할 수 있다.

양 43년생 부러움을 살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5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 67년생 인맥을 활용하여 성과를 본다. 7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로지 같아라. 91년생 동분서주해봐야 별 이익이 없으나 그래도 움직여라.

원숭이 44년생 자식들을 차별하면 원망을 듣는다. 56년생 형편과 능력에 맞춰서 행동. 68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80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92년생 남의 말만 듣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닭 45년생 기쁨이 해갈되듯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소피 뱀파이어의 만남이 즐거운 일을 부른다. 69년생 휴대폰 분실위험이 있다. 8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과의 만남은 자제. 93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게 미덕.

개 46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라. 58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 70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렵다. 82년생 두 손에 떡을 들고 남의 것까지 욕심. 94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스승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

돼지 47년생 매화가 만발하니 곧 봄이 온다. 59년생 귀인을 만나 재물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71년생 유혹이 많으니 진중하게 행동. 83년생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이 해결. 95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을 조심.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7	8
	1	9	3				
		7					
		6		5	8	3	
1		5		2			
	4	8	6		5		9
				6			
				4	1	9	
8	6	3	5				

7			4			9		5
5		6			8		3	1
	4						7	
1			8		7			9
3			9		1			4
	2							6
		7	5		6	8		
	5			3				9
6			2		8			3

스도쿠 정답

2	7	1	6	5	8	9	3	4
8	6	9	3	7	2	4	5	1
5	8	9	2	4	1	6	7	3
6	1	5	8	9	7	3	4	2
7	9	2	6	8	4	5	1	3
4	8	5	7	1	9	2	6	3
1	2	6	9	5	7	4	8	3
9	5	7	8	4	6	1	2	3
8	4	2	1	6	7	5	9	3

문제 제공= **보스**



김상회의四季

후천개벽 시대

기존의 주역에 대하여 '정역'(正易)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자못 그 의미가 심오하다. 김일부 선생이 활동하던 구한말의 시대 상황은 실학자들의 저작 활동이 이어져 오던 때다. 저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괘를 통한 수리(數理)로서 세계의 변화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역수원리(曆數原理)로서 기본으로 삼는다. 비슷한 듯 다르다. 기존의 주역사상에 대하여 후천개벽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역수원리가 무엇이던가. 수의 조합을 통해 세상이 형성되고 변화해 나가는 원리를 통찰한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더하여 개인의 운명 더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도 점괘하여 응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넓게는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운행을 설명하기도 하고 가깝게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영향을 받고 반응해 나가는지의 궤적을 그리는 것이다. 주역만으로도 충분히 보였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김일부라는 영적인 천재가 자신의 체득 논리를 정리하여 '정역'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토록 존경하는 소강철 선생의 매화 역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예측원리를 정리할 때도 주역을 근간으로 하면서 매우 뚜렷한 신적인 족적과 인상을 남겼다. 혁신적인 것은 후천개벽 사상을 보다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천개벽 사상은 구한말 시대의 민중운동이라 할 수 있는 동학사상과 천도교 대종교 그리고 증산도에도 그 영향을 심대하게 끼쳤다고 얘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부경에서 보듯 또다시 하느님 사상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의 하느님은 최제우께서 '한울님'이라 지칭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19호